연출 합평회 자료.

1. 준비 단계.

저는 신입생 워크샵 연출에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기에, 연출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개강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저는 작년 신입생 워크샵에 참여하면서 성균극회에 대한 활동과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과정을 신입생들에게 똑같이 선사하고 싶어서 연출을 하려고 했고, 저의 이번 공연의 모토 또한 ‘신입생들이 즐거운 공연을 만들자.’ 였습니다.

연출이 되기 위해 한 준비 단계들은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가깝고도, 제가 직접 참여한 공연인 개천의 용간지의 연출인 이소정 선배님께 여러가지 자료들을 부탁 드렸습니다. 이소정 선배님의 연출 자료들은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선준 선배님의 조언들도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비 초기 단계에는 저는 스타니스랍스키의 책 ‘배우수업’을 읽었습니다. 책 ‘배우수업’이 연기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론적인 베이스를 잡고 갈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제가 참여했던 ‘개천의 용간지’ 배우노트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훑어 보면서 캐스트 친구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다루어야 할 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 계획짜기.

처음에는 계획을 하루 단위로 짜려 했습니다. (내일은 이거하고 이거해야지~를 그 전날 짜는 형식) 이렇게 하면은 안됩니다. 저는 라영란 선배님의 조언으로 창기와 함께 한달의 큰 그림부터 그리고, 그 후에 디테일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1. 대본 정하기.

대본 선정에서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미 두번의 같은 이름의 공연이 올라갔었고, 그것도 재작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모스트 메인으로 대본을 정하기에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올모스트 메인을 한 첫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대본의 재밌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 이유는 제가 한번 연기를 해봤었기에 더 잘 알고, 더 잘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출이 처음인데 어려운 작품이거나, 해석이 어렵거나, 분위기가 너무 어두우면 연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 캐스트 연습

연습 계획표는 따로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연습 모토가 캐스트들이 즐겁고, 다시없을 소중한 추억을 만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입생 워크샵이니 만큼, 연습 분위기와 연습 강도를 약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연습 분위기와 연습 강도를 낮추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캐스트들을 단합하고 모으는 것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모두 학기 중에 공연에 참가한 탓도 있겠지만, 캐스트 9명을 한꺼번에 모으기가 힘들었습니다. 한공간안에 정해진 시간에 모으기가 힘들다 보니, 연습 분위기도 초반에는 좀처럼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저의 화를 내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분위기는 더욱더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연출은 권위가 있어야하는 자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남용하거나 너무 심하게 사용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저는 캐스트들에게 너무 친근한? 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캐스트들에게 어떠한 것을 끌어내거나, 규율에 대해서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연출은 ‘연출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스테프

전체적인 평: 스텝들이 주로 58기 신입생이다 보니, 스테프적인 부분을 가르치면서 공연까지 만들어가기에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고, 신입생이다 보니 조금 겁나서 (?) 소극적이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들의 지시가 없으면 일을 잘 못하는 경향.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선배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출로써 스테프를 많이 돌보지 못해 아쉽습니다. 조연출인 창기와 역할 분담을 하여서 창기가 스테프를 더 많이 봐주도록 하긴 했습니다만 공연 직전에는 저도 급한마음에 너무 창기한테 떠맡겨 놓고 캐스트만 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연출의 자리에서 스테프도 같이 신경 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출하실 분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연출도 스테프의 일이나 역할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공연 전에 조명 스테프를 한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어떻게 일을 해야하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연출을 하실 분들은 각 스테프들이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면 알 수록 좋습니다.

* 기획: 기획은 지현이가 너무나도 잘해줬고, 지현이를 믿었기에 애초에 맡기기도 했었습니다. 혜리도 지현이를 도와서 잘해주었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이 워크샵 예산이 이번에 유독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율전과 명륜 팜플렛을 우리 기획/ 캐스트가 만들어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 무대: 무대팀은 일처리가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과물이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무대팀이 중간에 약간의 분열이 있었지만, 그래도 더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되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한가지 바뀌었으면 하는 점은 일의 할당량과 책임의 문제가 무대 팀원들에게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무대 디자인 회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디자인도 늦게 나왔습니다. 민주가 혼자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다른 팀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독단적으로 하지 않기에는 더 애매한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무대디자인이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무대팀 내에 56,57기 선배들이 이번 공연에서는 더 후배들을 모으고, 이끌어야 했고, 후배님들도 모르면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찾아봤어야 합니다.
* 조명: 조명팀은 58기 신입생 두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공연에서 오퍼를 보는 것 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조명팀에게 바라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잘 따라와 줬고, 잘 해줬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조명기기의 상태와 돼지코 문제, 그리고 율전으로 조명기기를 보내는 것에서의 조명기기 고장등이 있습니다. 공연 전에는 돼지코 문제와 라인변환 때문에 계속 율전과 연락을 취하면서 고쳐나가야 하므로 계속 신경을 썼고, 공연직전에는 대파가 나가서 바꾸기도 했으며, 공연 중에는 대파가 계속 점멸하여 시선 강탈을 했습니다. 또한, 명륜공연이 끝나고 율전으로 용달 보내는 과정에서 대파가 나오지 않아 율전에서 당황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조명기기는 매우 예민하므로 더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 점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명기기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조명기기는 설치 보다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조명은 새로 샀습니다. 별조명은 진짜 이쁘니까 꼭 사용하세요!

* 음향: 음향 팀 또한 조명팀처럼 58기 신입생 두명으로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게도 음향을 찾는 방법부터 오퍼까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음향팀도 너무 잘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음향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창기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음악에 아는게 없고, 창기가 잘하니까 맡겼습니다. 너무 책임감 없이 맡긴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창기와 음향팀 모두 잘해주었습니다. 이번 음향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엠프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대관문제와 연결될 수 있지만, 음향기기가 없어서 다른 동아리에서 빌렸습니다.

* 의소분: 의소분팀은 신입생 한 명이었습니다. 의소분이 한명이다 보니 혼자서 겪는 어려움이 정말 많았을 텐데 너무 잘해주고 열정가지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모스트 메인의 극 특성상 소품도 많았고, 구하기 어려운 소품도 많았을 텐데 잘 구했습니다.

의소분팀이 아쉬웠던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적었다는 것 입니다. 사람이 두 분만 더 있었으면 분장도 같이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